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한국기계공업의 메카, 창원

창원은 선사문화와 철기문화를 꽃피운 역사적 전통을 지닌 고장으로 오늘날에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한국기계공업의 메카이며, 가장 살기 좋고 품격 있는 도시, 산업화 시대에 성공한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이다.

창원 지역의 산업경제

창원은 1974년 4월에 건설부 고시에 의해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대규모 기계공업기지가 건설되었고,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1993년에는 국내 최초로 완벽한 도시계획에 의해 인공도시건설을 활발히 추진하여 13.5km의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북쪽은 신도시, 남쪽은 공업단지로 발전해 왔다.

창원시로 승격 당시 12만명에 달하던 인구가 2003년 5월말 현재 511,855명까지 크게 성장한 공업도시이다.

경제인구로는 2002년 말 기준으로 31,362개 업체에 222,777명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중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인 30,803개 사업장에 116,810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98.2%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그러나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수가 0.2%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나, 전체의 24.9%인 55,458명이 이곳에서 종사하고 있어 지역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창원시의 산업구조도 다른 도시와 비슷하게 중소규모 사업장이 많았으며 이 가운데 5인 미만인 영세 소규모 사업장도 전체 사업장의 79.8%에 달해 안전의 사각지역에 놓인 기업체가 창원지역에도 많음을 볼 수 있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8%인 3,707개사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운수창고업이 7%, 건설업이 3.3%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광업, 서비스업 등에서 49.3%인 109,746명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창원지역은 공업도시답게 산업재해에도 취약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금년도 상반기 전국 평균 재해율이 0.42인데 비해 창원지역은 0.54로 상당히 높은 것이 그 답변이다. 다행히 이 수치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한 수치이나 전반적으로 금년도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비춰볼 때 아직도 산업재해 위



협에 근로자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산업안전협회 창원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의 금년도 상반기 평균재해율이 0.19임을 볼 때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진다면 취약한 산업구조일지라도 산업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민간단체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산업사회의 숨은 일꾼 안전인

《한국통신산업개발(주)KT서마산지점 증축 및 보수공사 현장, 유창수 대리》

마산 서성동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과 함께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 리모델링 현장인 한국통신산업개발(주)KT서마산지점 증축 및 보수공사 현장(김달기 소장)의 유창수 대리를 만났다.

유창수 대리는 안전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온지는 불과 얼마되지 않았지만, 한국안전연대 부산·울산·경남지역 안전관리자연합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현장의 안전을 빨리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타 현장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는 안전연대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안전에 대한 긍금증을 찾았고, 오늘날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유창수 대리는 처음 안전업무를 시작했을 때보다 안전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 것 같은 지금이 더 어렵다고 말한다. 그래도 짧은 안전인으로서의 길을 걸어오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데에는 “진정한 안전은 일방 통행적 지시나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의 이념인 인간존중도 생명을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근로자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안전하게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전의 기본이념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김달기 소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현장내 근로자의 쉼터 마련을 위해 오늘 찾은 이날도 각종 도서, 의자, 책상 등을 마련하라는 보고를 받았다.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도 복지는 있다고 말하는 김달기 소장의 의지는 유창수 대리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기준을 만들어 가는데 또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맡은 바 일에 충실하고 있는 우리 안전인에 비해 우리나라의 산업현장,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은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유창수 대리는 말한다.

무재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상처리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안전사고가 은폐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안전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임에도 규제완화 때마다 철퇴를 맞고 있는 안전규제 등으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안전업무를 하고 있는 안전인이 제 목적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



▲ 유 창 수 대리

때문에 눈치보는 안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한다.

우리 나라도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풍토가 요구되며, 그러기 위해 규제완화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먼저,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의 강화와 건설현장에서 유독 비정규직 안전관리자가 많은 사회적 구조를 국가 차원에서 재정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역이용하는 근로자를 없애고, 공상처리로 안전사고를 은폐하는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산업재해 기준이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우리의 안전인도 현장에서 제 목소리를 내며 무재해 현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안전문화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유창수 대리는 말을 맺는다.

〈〈통일중공업(주)안성균 안전환경팀장〉〉

창원공단에 위치하여 자동차부품인 밧손과 액슬, 특수사업분야의 기동장비(괘도차량 밧손, 구동장치)와 중·대공화기류 그리고 공작기계의 머시닝센터류와 각종 무물제품을 생산하는 통일중공업(주)는 최근 최평규 회장의 인수와 함께 새로운 체제의 경영 마인드로 전 사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2003년부터 흑자경영으로 전환되는 등 통일중공업(주)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이 회사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고 적극적인 경영방식의 통일중공업을 초일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기업행동지침인 “생각즉시 행동”이라는 슬로건이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사고는 곧 안전분야에서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전년 동기대비 54%나 감소시킨 재해율이 대표적이다. 이는 금년에도 이어져 산업재해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안전이 새로운 전환기의 중심에 있는 안전환경팀의 안성균 팀장을 만났다.

평소 안전은 “백마디의 구호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성균 팀장은 안전인으로 길을 걸어온지는 짧으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새로운 안전기법을 연구하는 자세로 이것이다 싶으면 생각즉시 행동하는 과감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항상 현장과 함께 발로 뛰는 분주한 안전인이다.

그러나 통일중공업은 중공업분야의 특성으로 중량물 취급이 많고 사업장 규모가 크며, 근로자의 고령화에서 오는 근골격계 질환 재해가 많다. 따라서 금년도 최대의 안전경영 중점사항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따른 재해 근절에 역점을 두고 안전환경팀도 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뛰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04년도 상반기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이다. 대기업 대부분의 사업장이 전문기관에 위탁조사 또는 유해요인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 안 성 균 팀장


많은 통일중공업은 노사가 함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자체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안전공단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와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노사가 함께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근골격계질환 재해예방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안성군 팀장이 전하는 말 중에 인상깊은 몇가지가 있다. 첫째는 최고의 전문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여 전문 정형외과의 시설에 버금가는 시설을 갖춰 근로자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으며, 둘째는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복귀 재활프로그램 운영이다. 산재 근로자가 현장에 조속히 복귀하기 위한 적응훈련과정으로 3개월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이곳에는 근골격계질환 재해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고, 그 활동의 중심에는 안성군 팀장이 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안성군 팀장은 현장과 함께 숨쉬는 안전관리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늘도 현장으로 향한다.

재난관리시스템

창원시에서는 인구 52만의 위상과 공단의 특수성으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타 지역보다 더욱 절실하다. 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먼저, 재난 발생시 즉각 대피할 수 있는 자동 음성정보 통신시스템을 50개소에 설치하고, 2005년도에는 8개 지역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방지를 위해 소방서, 경찰서, 가스·전기·통신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연결하여 비상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가동하고 있고, 주민 재난 무료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정확한 재난예보 및 경보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매년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각종 점검을 통한 재난예방에 경주하고 있다. 

〈최종덕 기자〉

